한국고용정보원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5. 9.(금) 09:00 (2025. 5. 9.(금) 석간)

지역일자리 양극화가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 부추겨, 인재 중심의 일자리 전략으로 극복해야

한국고용정보원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노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 현황과 원인을 집중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 확대>

'13~'23년까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46.8%에 이른다. 특히 수원, 화성,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했다. 비수도권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도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충남의 산업도시들로 확인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 반면,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조선업 밀집 지역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도시들도 청년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도시들의 쇠퇴로 인해 기존에는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를 갖고 있던 광양, 거제, 여수, 영암 등의 여성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대임금 격차도 확대되어, '13년에는 임금이 높은 상위 지역에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이 8곳이나 포함되었으나

’23년에는 6곳으로 감소했으며, 그나마 상위 10곳 이내에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소멸을 향한 청년유출의 질주를 멈추기 위한 정책과제>

연구진은 그동안 꾸준하게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양극화가 확대된 데 대해, 지역의 인재유출(특히 청년층)과 제조업 쇠퇴가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이상호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기업을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시대(피플 투 잡)에서, 젊은 인재들이 모여있고 이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쫓아가는 구조(잡 투 피플)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정책방향도 교통망이나 산업클러스터와 같은 경성-인프라와 사회적 자본, 인재유치를 위한 연성-인프라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기업의 낮은 임금으로 청년과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고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수급하지 못해서 혁신하지 못하는 ‘저숙련 함정’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지원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이 스스로 지역발전의 대안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재정적 여력과 내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지역 간에 소모적 경쟁만 강화되지 않도록 지역의 정책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붙임] 지역 간 일자리 격차 관련 주요 통계 참조

연구보고서 전체 원문은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의 [연구성과] → [연구성과물] →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받아볼 수 있다.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팀	책임자	연구위원 이상호 (043-870-8349)

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정부 ☎129 / www.e-gen.or.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지역 간 일자리 격차 관련 주요 통계**

□ 전체 취업자 수 변화 추이

○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 규모는 약 15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331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46.8%를 차지함

○ 취업자 증가 상위 20개 시군 중 경기도 취업자가 5분의 4(77.2%)를 차지하며. 수원, 화성, 용인, 시흥 등이 중심인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함

○ 충북 진천군과 충남 아산시 등 경기도에 인접하여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준-수도권 지역들도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짐

○ 세종시 취업자 수는 2013년 5만 5천 명에서 2023년 21만 명으로 15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혁신도시인 전남 나주시와 전북 완주군 등도 각각 취업자 수가 35% 내외로 증가

<취업자 수 증가 상위 20개 시군>

		취업자 수			
		2013 1분기	2023 1분기	증감(명)	증가율
	세종특별자치시	55,591	209,336	153,745	276.6
경기	하남시	66,971	171,233	104,262	155.7
경기	화성시	271,679	536,358	264,679	97.4
경기	김포시	142,122	264,568	122,446	86.2
경기	광주시	136,804	220,835	84,031	61.4
경기	평택시	212,827	329,845	117,018	55.0
경남	양산시	123,042	178,993	55,951	45.5
충북	진천군	38,907	56,453	17,546	45.1
경기	파주시	182,972	260,976	78,004	42.6
경기	남양주시	264,826	377,642	112,816	42.6
경기	양주시	90,274	127,961	37,687	41.7
경기	시흥시	211,986	299,577	87,591	41.3
충남	계룡시	12,846	17,963	5,117	39.8
경기	오산시	97,765	134,545	36,780	37.6
전북	완주군	41,491	56,709	15,218	36.7
경기	용인시	407,886	549,901	142,015	34.8
전남	나주시	47,555	63,943	16,388	34.5
충남	아산시	150,511	202,374	51,863	34.5
경기	과천시	28,277	37,430	9,153	32.4
강원	춘천시	117,982	154,912	36,930	31.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2013-2023년, 반기자료.

□ 청년 취업자 추이

○ 전체 취업자 증가 추이와 마찬가지로 청년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20개 시군 역시 경기도 및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도 지역, 혁신도시, 도청소재지 등으로 나타남

○ 2023년 1분기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안산시(17.4%)와 충남 천안시(16.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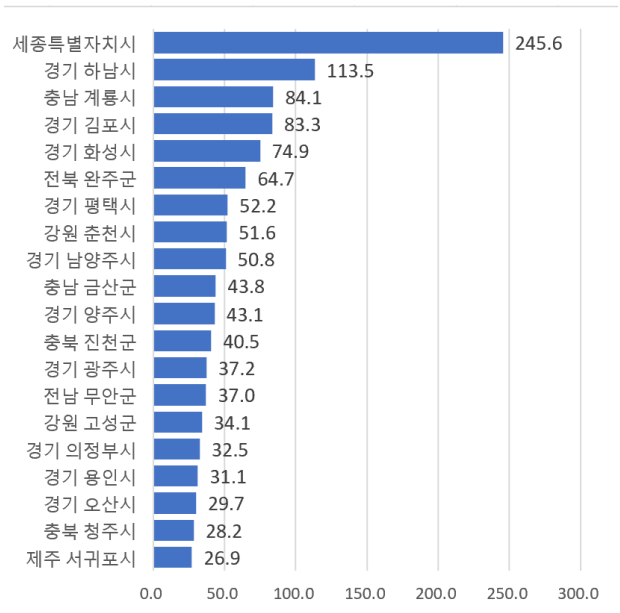
○ 청년 취업자 하위 20개 시군을 형성하는 지역은 대부분 인구소멸 위험을 겪고 있는 군지역이 주로 포함

○ 전국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1.8%를 기록한 전북 순창군은 10년 전에 비해 청년 취업자 수가 70%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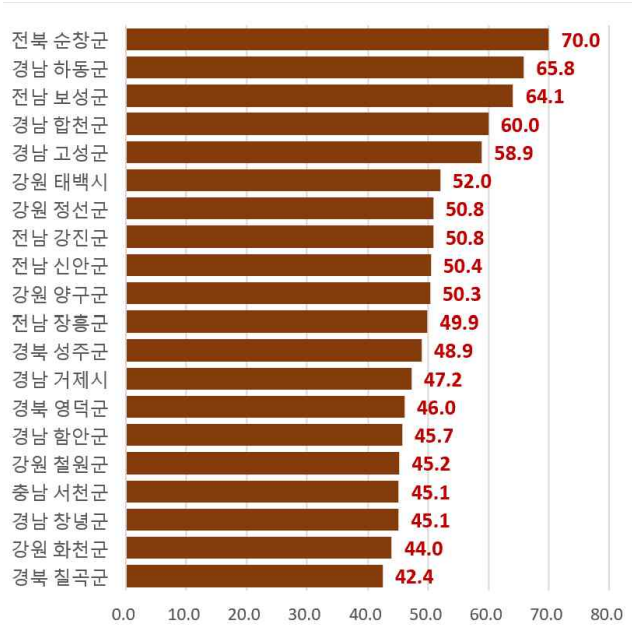
○ 지역 간 청년 취업자 비중의 갭이 확대된 것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특히 경기도와 충청 지역으로 청년들이 이동한 결과임

<청년 취업자 수 증감율 상위 20개 시군>

(가) 청년 취업자 증가율 높은 상위 20개 시군



(나) 청년 취업자 감소율 높은 상위 20개 시군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 2013-2023년, 반기자료.

□ 여성 고용률 추이

○ 여성 고용률이 증가한 상위 20개 시군을 살펴보면 남성 중심의 고용 구조였던 제조업 중심지가 다수 포함됨

○ 국내 최대의 제철소가 위치한 전남 광양시는 2013년 여성 고용률이 40.6%에서 2023년 5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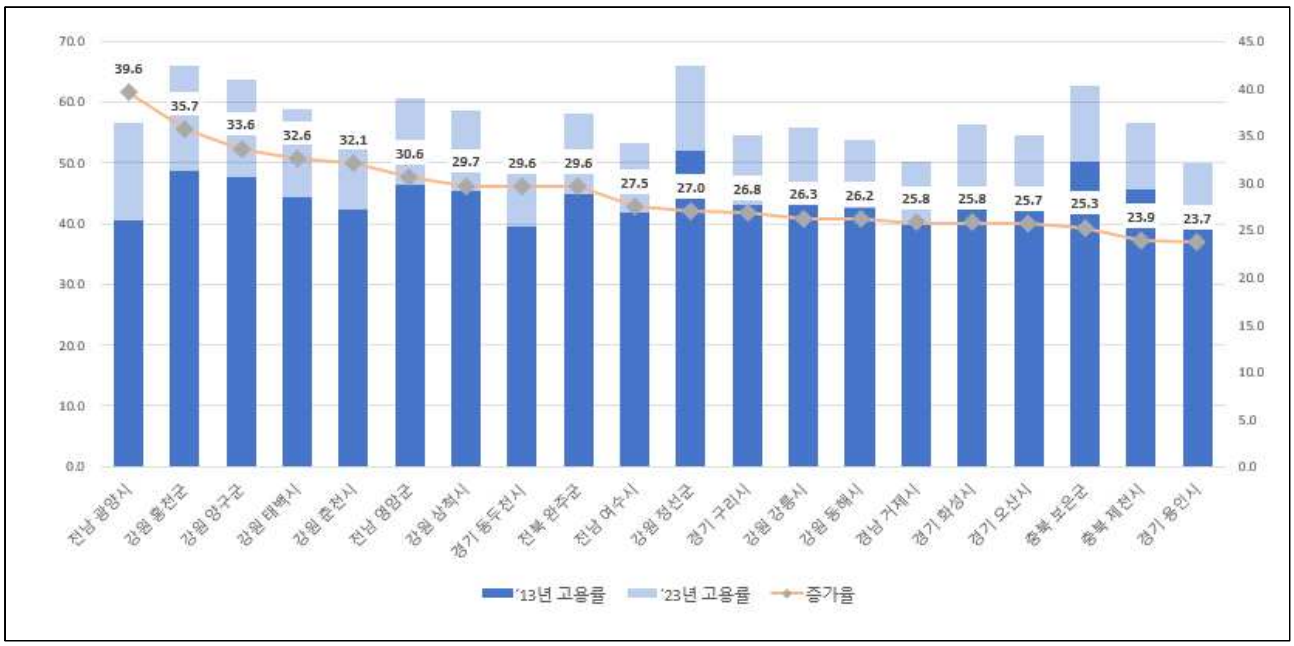
○ 2013년 여성 고용률이 39.9%로 전체 시군 중 두 번째로 낮았던 거제시 역시 2023년에는 50.1%로 증가

○ 단계적 폐광이 진행되었던 강원 태백시·삼척시·정선군, 화학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남 여수시, 조선업 밀집지역인 전남 영암군 역시 여성 고용률 증가가 높았음

○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철수한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도 홍천군과 양구군 등도 등 대체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여성 고용률이 증가

○ 경기도 신도시 지역들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된 것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

<여성 고용률 증가 상위 20개 시군>



□ 월평균 상대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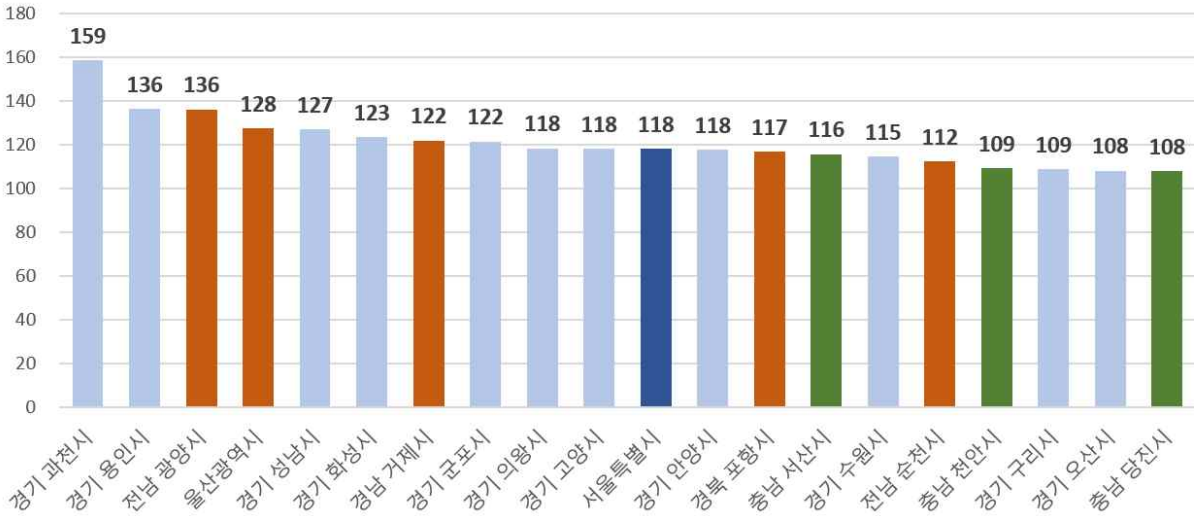
○ 2013년 지역별 임금 분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위 20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비수도권이었으나, 2023년에는 6곳으로 감소

○ 2013년 임금 상위 10곳 중 광양시(3위), 울산광역시(4위), 거제시(7) 등이 포함되었으며, 포항시, 서신시, 여수시 등도 20위권 안에 포함되는 등 비수도권 중화학 집적지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나,

○ 2023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상위 10곳에 비수도권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상위 20권으로 넓히더라도 충청권 이외 지역에서는 울산(13위), 광양시(14위) 등이 순위가 대폭 하락하여 포함됨

<월평균상대임금 상위 20개 시군(전국평균=100)>

(가) 2013년 1분기 상위 20개 시군(전국 평균 = 100)



(나) 2023년 1분기 상위 20개 시군(전국 평균 = 100)

